

# 육진(六鎭) 방언의 특징\*

넬리 박\*\*

## 1. 카자흐스탄에 있어서의 언어 상황

### 1) 고레 사람에 대한 연구사

구소련에 살고 있는 고레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외국인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고레 사람에 관한 최초의 논문은 1974년에 한국어로 강주진에 의해서 발표되었고, 1984년에는 고송무 교수의 논문이 나왔다. 나중에 이 책은 한국어와 영어로 번역되었다. 그 이전에도 여러 언어로 고레 사람에 대한 개개의 논문이 나온 것이 있었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와 더불어 국경이 개방되면서 고레 사람과 고레 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 후 구소련과 외국에서도 많은 논저가 나왔다. 소련에서 러시아어로 출판된 가장 유명한 논저만을 본다면 게오르기 강이 1995년에 쓴 ‘카자흐스탄의 고레 사람에 대하여’, 보리스 박이 1993년에 쓴 ‘제정 러시아에 있어서의 고레 사람’ 등이 있다. 이러한 논문들은 이주 자체, 이주의 자유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의 고레 사람의 적응을 쓴 글이다.

---

\* 이 글은 비교문화연구소 29회(1997년) 집담회 발표자료임.

\*\* 카자흐스탄 동양학연구소

## 2) 고레 사람과 고레 말이란 술어에 대하여

고레 사람과 고레 말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겠다. 고레 사람과 고레 말에 대한 술어는 러시아에서 출판된 문법에 관한 논저에서 이미 1920·30년대에 사용되었다.

‘고레’란 단어는 ‘КОРЕЙСКИЙ(Korean)’이란 러시아어로부터의 번역이다. 즉 고레 사람과 고레 말은 러시아어를 통해서 정착된 것이다. 고려란 술어는 한국 역사의 어느 한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소련에서 고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3) 카자흐스탄의 고레 사람에 대하여

고레 사람은 구소련의 모든 지역에 살고 있다. 고레 사람은 약 45만 명에 달한다. 그들은 우즈베키스탄에 약 20만 명이 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카자흐스탄에 11만 7천만이 산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인 러시아, 카프카스, 우크라이나 등에 살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의 고레 사람에 관한 문제는 이미 독립된 국가인 다른 지역에서의 상황과 대체로 비슷하다. 그렇지만 카자흐스탄에는 하나의 특수성이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약 120여 민족이 살고 있다. 그 중에서 카자흐인이 40%로 가장 많고 러시아인이 40%, 기타 민족이 20%이다. 인구수를 보면 카자흐스탄의 고레 사람이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독일인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관계는 변화하고 있다.

## 4) 고레 사람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고레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코이네이다. 즉 방언들이 혼합된 결과로 생긴 언어이다. 고레 사람들은 이 언어를 고레 말이라고 부른다. 고레

말은 기본적으로 함경도의 두 개의 방언, 즉 명천·길주 방언과 육진 방언이 혼용된 것이다.

우리 말의 문법 체계에 대해서는 고영근 교수님이 나무 그림으로 표시하였다. 그 그림에 따르면 고레 말의 기본은 문화변종과 방언변종으로 구성되었다.<sup>1)</sup>

두 가지 방언 중에서 육진 방언은 방언학 자체의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역사, 어원학에서도 일정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은 다른 방언과 구별되는 음성적, 문법적, 어휘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레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에서 러시아 땅으로 이주할 때(1861-1863년)부터 다른 역사적 상황이나 언어적 상황 하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또 육진 지역에서도 지리적으로 중심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일수록 중세 언어의 특성이 강하게 유지되었다. 잘 알다시피 이곳은 15세기 조선 시대에 육진을 개척하기 위해서 남쪽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이주시켰던 지역이다. 이 지역의 언어가 지금 한국어의 모든 방언 중에서 일곱 번째 독립된 방언으로 인정된다.

### 고레 말 습득 정도

고레 말을 습득한 사람 즉 고레 말을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노령 세대로 60세 이상이다. 40세 이상인 사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고레 말을 이해하고 조금은 말한다. 젊은 세대는 부모가 이미 언어를 모른다면 대개 말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집에 고레 말을 서투르게 하는 할머니가 있다면 젊은이들은 조금은 이해한다.

---

1) 고영근, 1993, 『우리 말의 총체 서술과 문법 체계』, 서울, 1993, p. 203.

## 이중언어 병용, 러시아어와 고레 말 병용, 그외 다른 언어들

러시아어와 고레 말도 잘 습득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고레 사람은 러시아어를 잘한다. 또 카자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카자흐스탄의 사회적 환경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민족사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면 고레 사람 환경에 어떤 민족이 산다면 그들은 고레 말을 잘한다. 서울에서 있었던 해외 동포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손 감독의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거기에서는 고레 말을 터키인, 러시아인, 우즈베크인이 말하고 있으며 게다가 젊은 사람은 고레 사람보다 더 잘한다.

이 문제는 카자흐스탄 전 지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민속언어학, 사회언어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다. 특히 카자흐스탄 국립대학 대학원생인 손은 고레 말과 러시아어의 이중언어 생활에 관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다. 이 논문을 구성하는 양케이트는 고레 말 발전의 기본적인 경향, 고레 말과 다른 언어와의 상호 영향을 밝히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 2. 육진 방언의 특징

### 1) 음성·음운론적 특징

(1) 한 명사 내에서 두 자음이 결합될 때 육진 방언은 [ㄹㄱ], 표준어에서는 [리]이다.

갈기	- 가루
놀가지	- 노루
잘기	- 자루
실기	- 시루

그러나 동사는 피동형에서 육진 방언은 [ㄹ ㄱ]인데, 표준어는 [ㄹ ㄹ]이다. 대응 관계는 다음과 같다.

놀기운다	- 놀린다
들군다	- 돌린다
걸긴다	- 걸린다
(싸움) 말긴다	- 말린다

(2) 육진 방언에서는 비불규칙 활용의 경우, 두 모음 사이에서 규칙 활용한다.

서분하다	- 서운하다
불부다	- 부럽다
더버서	- 더워서
치바서	- 추워서

(3) 육진 방언에서는 비음[ㄱ]이 [i] 모음을 선행할 때 탈락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ㄱ]이 탈락하지 않는다. 비음 [ㄱ]이 단어 경계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따이	→ 땅집이
코이	→ 콩갈기
자이	→ 장물이
바다이	→ 바당물이
사이	→ 상보이, 상발이

(4) 육진 방언에서는 [ʃ]라는 발음을 많이 한다.

세사	〈세상〉
순대	
서울	

(5) 중세 국어의 /스, 즈, 츠/가 표준어에서는 /시, 지, 치/로 발음되나, 육진 방언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ʃidʒip]	〈시집〉
[ʃinibi]	〈시누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스]가 [ʃ]로 발음된다.

[ʃifnæ]	〈송냥이〉
[ʃidʒægiri handa]	〈시작한다〉

(6) 육진 방언에서는 [u, o] 모음의 Umlaut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a, ai] 모음의 경우에는 [ɛ, ei]로 진행되었다.

고기	
죽이다	
애기	〈아기〉
애비	〈아버지〉
에미	〈어머니〉

## 2) 문법적인 특징

### (1) 형태적인 특징

육진 방언과 표준어 격조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R. King과 연재훈이 발표한 논문 ‘중양아시아 한인들의 언어 - 고레 말’에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위 논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발표하려 한다. 고레 말은 주격에 ‘가’와 ‘께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날씨 좋다.

〈날씨가 좋다.〉

선생님이 미국으르 떠났다.

〈선생님께서 미국으로 떠났다.〉

대격의 경우에는 ‘르/으’가 표준어의 ‘를/을’에 대응된다.

우리 조개 길으 잃었다.

〈우리 조카가 길을 잃었다.〉

아버니 큰아버니께 돈으 디렸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돈을 드렸다〉

육진 방언의 몇몇 특수 조사와 어미는 표준어와 다른 형태적 특징을 보인다.

내마 더 크다.

〈나보다 더 크다.〉

늦두라

〈늦도록〉

### (2) 대명사

		단수		복수	
	육진 방언	표준어		육진방언	표준어
I	나/내	나/내		우리(덜)	우리(들)
	-	저/제		-	저희(들)
II	너/네	너/네		너덜	너희(들)

저/제	자네	저덜	자네들
당신	당신	당신	당신들
-	댁	-	댁들
Ⅲ 가/자	아이/애	가/자덜	아이들
D-사름이	D-사람	D-사름덜이	D-사람들
D-냥반이	분	D-냥반덜이	분들

### 3) 어휘 · 의미적인 특징

육진 방언은 부분적으로 어휘 · 의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보이기로 하겠다.

#### 어휘적인 특징

새아가	〈소녀〉
선순아	〈소년〉
닭아리	〈계란〉
우티	〈옷〉
자그배	〈혼혈아〉
해개먹음	〈일식〉
애기서리	〈임신〉
동삼이	〈겨울〉
헐하다	〈쉽다〉
떡이	〈빵〉
도수가	〈체온계〉
당판이, 장판이	〈바닥〉
한닐	〈일평생〉
혼세	〈결혼〉



도둑배리	<맹장>
서방재	<신랑>
새애기	<신부, 처녀>
부술기(불+수레)	<기차>

### 의미적인 특징

떠든다	<싸움한다>
가끔	<지금>
고집하다	<겸손하다>
바뿌다	<힘들다>
머리	<골>
고리	<머리>
까지	<까지(to)>
꺼지	<까지도(too)>
가깝다	<가깝다(관계)>
가깝다	<가깝다(거리)>
켄다	<켄다(성냥)>
썬다	<켄다(전기)>

### Honorific

안질	눈이
새일날이	생진날이
해로바한다	얕는다
시다하다	배고프다
낭매하다	자빠진다

## 단어의 구성

덧사리	〈남에게 붙어서 사는 사람〉
만티재물이	〈뺨용 증조〉
서탑재물이	〈가루비누〉
장난꾸레기	〈장난꾸러기〉
건달척이	〈꽁짜로, 무료로〉
개똥불이	〈반딧불〉
절두배기	〈절름발이〉
솔낭기	〈소나무〉
형거치	〈형겉〉
팔매원	〈판매원〉

## 단어 결합

사람 골랐다	〈사람(을) 뽑았다〉
자리르 차질했다	〈자리를 잡았다〉
정신 춘다	〈정신을 차린다〉
사 가춘다	〈상 차린다〉